

'순천 황전 34.3도' 광주·전남 말복 무더위

광주·전남 전 지역 폭염특보

오늘부터 30~100mm 비 예보

절기상 말복인 15일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33도 안팎의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최고 기온은 순천 황전 34.3도, 곡성 옥과 33.8도, 강진 33.7도, 구례 33.6도, 화순 33.4도, 나주 다도 33.3도, 광주 32.9도, 완도 32.4도, 장흥 32.2도, 목포 32도 등을 기록하고 있다.

광주와 전남 22개 모든 시·군에 내려진 폭염주의보도 유지되고 있다. 전날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지 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열대야 현상'도 광주와 전남 17개 시·군에서 관측됐다.

무더위는 오는 16일 정제 전선이 점차 남하하면서 한풀 꺾이겠다.

오는 16일에는 전남 북부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모든 지역으로 확대 되겠다. 예상 강수량은 30~100mm다.

비는 하루면 그치겠으나, 전남 남해안 일부 지역에는 17일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날까지 최고 체감온도는 33~35도 안팎으로 오르는



곳이 많아 매우 무덥겠다"며 "비가 내리면 더위는 한풀 꺾이겠으나, 대기 불안정에 따른 폭우와 강풍 피해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환기자



완도해경, 양성평등 소통공감 간담회 개최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경수)는 지난 10일(수) 경찰서 직원과 파출소, 합정 등 참석 희망자 대상으로 양성평등 간담회를 개최했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진도소방, 진도아리랑시네마 현장 안전 점검

진도소방서(서장 김광선)는 지난 10일 오후 중점관리대상인 진도아리랑시네마(진도군 진도읍)를 방문해 안전 점검·지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진도=조상용기자



광양소방서 중부의용소방대,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캠페인

광양소방서 중부의용소방대(대장 김수근·노은순)에서는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광양=기동취재본부



광주 동부소방, 비화재경보 출동관련 찾아가는 간담회 실시

광주 동부소방서는 비화재경보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방지하고 개선하기 위해 찾아가는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슬비기자



광주 남부소방, 재난약자 거주시설 대상 시민참여 화재대피훈련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정자)는 시민의 안전의식 제고 및 초기대응능력을 향상하고자 재난약자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시민참여 화재대피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이슬기자



담양경찰, 보행자 중심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활동

담양경찰서(서장 국승인)는 담양읍 관내 운전자 상대 개정된 도로교통법 관련 홍보활동을 실시하였다.

담양=박종영기자

유관순 열사만 아시나요?...여성 독립유공자 567명 있다



'3·1 운동'과 영화로 널리 알려진 유관순·남자현 외에도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수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존재한다.

15일 여성가족부와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여성 독립유공자는 567명이다.

여성들은 일제강점기 독립 운동의 한 축을 담당했다. 전국적인 국채보상운동을 전개했으며 3·1 운동이 일어나기 한 달 전인 1919년 2월에는 대한독립여성선언서가 발표됐다.

또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미국, 멕시코 등 세계 각국에서 여성 항일 단체를 만들어 구국활동을 전개했다.

독립운동가 조마리아는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로 유명하지만 본인

도 은금폐지부인회를 통해 국채보상연금을 납입하고 상해 재류 동포 정부 경제 후원회, 대한민국 임시정부 등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다.

독립운동가 김마리아는 일본 동경에서 유학 중에 2·8 독립선언문 수집장을 갖고 귀국해 3·1 운동 준비에 참여했으며 황해도 지역에서 조직 규합을 담당했다. 이후 대한에 국부인회 회장을 역임하고 대한적십자회 대한지부를 결성하며 임시정부를 위한 군자금을 모금했다.

독립운동가 정정화는 한국혁명여성동맹 조직, 대한에국부인회 재건 등에 참여해 항일활동을 전개했으며, 미주 한국여성단체들과 긴밀한 연락을 통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지지 성원을 두텁게 했다.

유일한 생존자 오희옥 지사...한국인 사병 탈출 기여

독립운동가 김락은 경북 안동에서 일어난 독립만세운동과 3·1 운동에 참가했는데, 이 일로 일제의 고문을 받아 두 눈을 실명했다.

독립운동가 김순에는 교사로 재직 중 우리나라의 역사를 가르치다 일제에 발각돼 만주로 망명했다. 대한에국부인회, 한인여자청년동맹, 신한청년당과 의용단 조직에 힘썼다. 1920년에는 일본이 간도 출병에서 저지른 만행을 폭로했고 1926년에는 임시정부경제후원회를 발족했다.

독립운동가 안경신은 독립 운동 중 동료들이 체포되자 상해로 망명을 했다가 1920년 8월 미국의원단이 내한할 때 국제적 여론을 환기시킬 목적으로 파견된 광복군총영의 제2대에 이산부의 몸으로 참가했다. 장덕진, 박태열 열사 등과 함께 평남 경찰국 청사와 평양시청, 평양경찰서에 폭탄을 던졌다.

독립운동가 조신성은 진명여학교를 설립하고 민족 교육에 전념했으며 이후엔 대한독립청년단 결성, 여성실업장려회 조직, 조선교육학교 설립 등에 힘썼다.

독립운동가 오광심은 광복군 제3지대장인 남편 김학규와 함께 제3지대 간부로 활동했으며 "광복군은 남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는 글을

통해 여성의 광복군 참여를 독려했다.

독립운동가 박차정은 의열단장 김원봉의 아내로, 의열단 활동을 하다가 의열단이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를 설립하자 제1기 여자부교관으로 선정돼 사관생도를 양성했다. 이후 남경조선부인회를 조직하고 대일본 라디오 방송, 기고 등에 담당했다. 1938년에 조선의용대 부녀부대를 조직해 단장으로 활동했으며 항일 무장투쟁에 참여하다가 부상을 당해 광복을 보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다.

독립운동가 권기옥은 3·1 운동, 군자금 모집으로 각각 옥고를 치렀으며 평양청년회 여자 전도단 조직 후 비밀 공작을 전개하다가 다시 일본에 발각되자 목숨을 타고 상해로 탈출했다. 상해에서 임시정부 활동을 하던 중 운남육군항공학교를 졸업하고 졸업 후에는 한국 최초의 여성 비행사로 복무했다.

독립운동가 오희옥은 현재까지 유일하게 생존해있는 여성 독립운동가다. 1926년생으로 1939년 14세에 중국에서 한국광복진선 청년공작대에 입대해 일제 대상 정보 수집과 한국인 사병 탈출에 기여했다. 현재는 투병 중으로 알려졌다.

최이슬기자



'개 식용을 종식하라!'

말복인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한국동물보호연합 등이 개와 고양이

를 식용으로부터 해방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경찰,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악성사기 정조준...TF 구성

윤호근 신임 경찰청장이 국민제감 약속 1호로 '경제적 살인, 악성사기 근절'을 발표한 가운데 경찰이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7대 악성사기 척결을 위한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15일 ▲전세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가상자산 유사수신사기 ▲사이버사기 ▲보험사기 ▲투자·영업·거래 등 기타 조직적 사기 ▲다액 피해사기를 7대 사기 범죄로 규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악성 사기로 인해 서민 민생이 위협 받는다고 판단했다. 전세사기 같은 경우, 2019년 검거 건수와 인원이 107건·95명에서 2021년 187건·243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고 한다. 최근 금리 인상과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으로 인해 브로커까지 개입한 조직적 사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올해 발생 건수가 줄었으나 올 상반기 피해 금액이 3068억원에 이르는 등 여전히 피해가 심각하다. 보험사기도 브로커가 연루된 조직적인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일부는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오유나기자

이에 경찰청은 남주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테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고 전국 수사지휘부 화상회의도 개최한다. 시도경찰청별로도 전담 TF나 전담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악성사기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도 강화한다. 보이스피싱 등의 단속기간을 기존 10월에서 12월까지 연장해 연중 단속으로 전환하고 조직사기 및 다액사기도 새롭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등 범죄수익 추적활동 등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수사 전 단계에 걸쳐 추가 피해방지 및 피해회복 조치에 집중한다.

또 경찰은 사기 피해자 단체와 학계 등이 참여하는 자문단을 꾸려 피해자들에게는 중요 사건의 단속 현황을 공유하며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개선 사항은 금융위·과기부·국토부 등 유관기관에 통보하며 유기적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